침대 유무에 따른 거주자의 안방공간 의식 및 평가

A Study on the Residents' Consciousness and Evaluation for the An-bang according to the Usage of Bed

임 소 연*
Lim So Yeon
안 옥 희**
An Ok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obtain basic materials that can be fulfil effective using of space by consider living behavior and attitude, a furniture usage and a space usage according to the usage of bed in An-Bang. It also suggests a plan about a method of furniture usage that is reflected resident's living behavior and attitude, desire, consciousness through the space evalu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The case of husband's age was less than 47,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husband and wife was above a university graduate, the percentage of possession of bed was high.
2. According to the usage of bed, this study showed difference of furniture usage, and that of life action.
3. According to the usage of b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uxury by result of the space evaluation.
4.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 satisfaction of atmosphere, and an area by satisfaction of furniture usage.
5. According to the usage of bed, the influenc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appeared differently by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o see the space evaluation effect on space satisfaction.

* 정회원,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연구조교
**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Ⅰ. 서 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방은 주택내에서 가장 폐쇄적이면서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예로부터 중요한 재물이 보관되고 장이나 농 등의 전통가구로 장식되었으며, 취침이나 휴식, 손님접대, 가사작업(다림질, 음식재료 다듬기 등) 뿐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과 가족의 임종도 안방에서 행해지는 등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지던 공간이다. 즉 오늘날의 거실의 기능도 함께 하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서양의 주거개념인 APT와 연립주택이 출현하여 전통적인 한식주택이 변형되면서 그 외형 뿐 아니라 주택 내부공간도 서양문화에 의해 입식화·서구화되었고, 이에 따라 안방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즉, 안방의 온돌 난방방식·온돌구조의 변화, 조명시설의 변화, 가구와 소품의 현대적 변화 등 다양한 물리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안방공간내의 거주자 의식 및 생활행태도 이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도임, 1992). 그러나, 이러한 주거형태와 생활문화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안방공간이 큰방, 엄마방, 부부침실, 내실 등의 호칭보다 안방으로 가장 많이 불리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방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에 변함없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간임에 틀림없다(송민영, 1987).

또한 가구사용에 있어 과거의 안방공간에는 여인들의 생활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가구가 안방과 거주자 사이의 매개체로 수납의 능률화, 휴식 등을 도모하게 되었고, 과거에 비해 공간사용과 수납의 필요증가로 가구의 양상이 매우 다양화되었다. 특히 1960년 이후 대표적 서양가구인 침대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취침문화를 선보였다는 사실은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거실공간은 서양식가구가 많이 도입되어 정착된 공간으로 가족단란이 많이 도모되었음에 반해 안방공간은 아직도 재래의 생활양식을 많이 따르고 있어 취침 뿐 아니라 식사, 가족단란, 접객 등이 행해지기도 하므로 우리의 주택문화속에서 전통의식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안방공간에서는 전통적인 가구와 현대적 가구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방은 이러한 혼용으로 인한 마찰이 가장 심한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대표적인 서구 가구인 침대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안방에 놓기를 희망하는 현대가구로 침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송민영(1987)의 결과와 10세에서 18세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42.5%가 침대생활을 선호한다는 최광식(1984)의 연구결과로 보아 앞으로 더욱 침대사용이 증가할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향과 최근 혼례용가구의 세트 생산 판매(안방용 가구의 경우 옷장-입식 화장대-침대, 옷장-좌식 화장대-문갑)로 인해 대부분 침대를 구입하지만, 결혼 2-3년이 지나 가장 구입을 후회하는 가구 또한 침대이다. 즉 침대에 대한 이상적인 요구와 인간의 실질적인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대 유무에 촛점을 맞추어 안방공간의 생활 행태, 가구사용, 공간사용을 살펴보고, 공간평가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거주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거주자의 생활 행태 및 의식을 잘 반영한 가구사용안을 제시하여 만족스럽고 효율적인 공간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라 침대 소유 유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침대 유무에 따라 안방가구 사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침대 유무에 따라 안방공간의 사용 및 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침대 유무에 따라 안방가구와 공간평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안방가구의 제 요소에 따라 안방가구의 사용만족도에 차이가 있을것이다.

6) 안방가구 제요소와 안방가구 사용만족에 따라 안방공간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7) 안방가구와 공간평가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1994년 3월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찰한 뒤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1994년 5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대구시와 경산시의 실평수 11평-25.8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이는 주부가 주공간내에서의 거주시간이 가장 길며 안방분위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은 국민주택이 서민주택을 대표하는 규모이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는 공간적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침대유무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직접방문에 의한 설문조사방법으로 총 230부를 배부하여 연구내용에 부합되지 않거나 내용기재가 부실한 39부를 제외시키고 1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조사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사항
(가족수, 남편과 아내의 연령·학력·직업, 월평균소득, 거주년수, 주거소유상태 등)

(2)안방공간과 가구사용에 대한 특성
(안방가구의 사용주체, 안방공간내에서의 생활행위, 안방의 사용시간, 안방의 가구배치 시기 등)

(3)안방의 공간사용 만족도과 가구사용 만족도(가구량, 가구배치, 공간넓이, 분위기 만족)

(4)안방내 가구와 공간의 평가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χ^2-test, T-test, 분산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 사항에 따른 침대 유무의 차이

N=191 (%)

변인 \ 구분		계	침대 소유 유무 있다	없다	비 고
가족수	3명 이하	39	14(35.9)	25(54.1)	x^2= 0.19224 df= 2
	4명	89	35(39.3)	54(60.7)	
	5명 이상	63	23(36.5)	40(63.5)	
	계	191			
남편연령	47세 이하	81	39(48.1)	42(51.9)	x^2=5.07952* df= 1
	48세 이상	98	31(31.6)	67(68.4)	
	계	178			
아내연령	44세 이하	85	38(44.7)	47(55.3)	x^2= 2.86247 df= 1
	45세 이상	104	34(32.7)	70(67.3)	
	계	189			
남편학력	중졸 이하	8	2(25.0)	6(75.0)	x^2=7.20579* df= 2
	고졸	49	12(24.5)	37(75.5)	
	대졸 이상	123	56(45.5)	67(54.5)	
	계	180			
아내학력	중졸 이하	29	3(10.3)	26(89.7)	x^2=11.92026** df= 2
	고졸	93	37(39.8)	56(60.2)	
	대졸 이상	68	32(47.1)	36(52.9)	
	계	190			
남편직업	관리직	95	37(38.9)	58(61.1)	x^2= 0.88651 df= 2
	자영업	60	25(41.7)	35(58.3)	
	무직·기타	23	7(30.4)	16(69.6)	
	계	178			
아내직업	유	71	13(35.1)	24(64.9)	x^2= 0.09792 df= 1
	무	119	58(37.9)	95(62.1)	
	계	190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3	4(30.8)	9(69.2)	x^2= 5.66594 df= 4
	100-150만원미만	63	27(42.9)	36(57.1)	
	150-200만원미만	34	10(29.4)	24(70.6)	
	200-250만원미만	35	9(25.7)	26(74.3)	
	250만원이상	45	21(46.7)	24(53.3)	
	계	190			
거주년수	2년 이하	64	26(40.6)	38(59.4)	x^2= 2.00293 df= 3
	3-5년	56	17(30.4)	39(69.9)	
	6-9년	47	20(42.6)	27(57.4)	
	10년 이상	23	9(39.1)	14(60.9)	
	계	190			
주거소유형태	자가	156	56(35.9)	100(64.1)	x^2= 1.83002 df= 1
	타가	33	16(48.5)	17(51.5)	
	계	189			

注 : 변인에 따라 빈도 합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 p(.05 **p(.0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침대 소유 유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침대 소유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x^2-test를 실시한 결과 남편연령과, 남편학력, 아내학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남편의 연령의 경우에는 48세 이상의 경우보다 47세 이하의 경우가 침대를 소유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편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의 경우가 중졸이하, 고졸의 경우보다 침대를 소유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주부학력에 있어서도 대졸 이상의 경우 침대소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침대 소유율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침대 소유 유무에 따른 안방공간과 가구에 대한 의식

1)안방가구의 사용의식

침대소유 유무에 따른 안방가구 배치의 주체, 가구배치 시기, 가구배치의 교체주기, 가구배치시 고려사항, 침대외의 다른 가구보유 여부 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안방가구 배치의 주체는 침대유무에 차이 없이 주부위주였고, 가구배치 시기도 침대 유무에 관계없이 이사시에 주로 배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구배치의 교체주기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배치시 고려사항도 역시 침대 유무에 차이없이 편리성 위주로 배치한다고 하였다. 이는 가구배치의 주체가 부부이고 가구배치시 장식과 부부개성을 중시한다는 선행연구(이선수, 1986) 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침대소유 유무에 따른 다른 가구의 보유를 보면 옷장, 이불장, 서랍장, 화장대 등 20

종류의 가구 종류 중 문갑과 사이드 테이블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갑의 경우 침대있는 경우보다 침대없는 경우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반면 사이드테이블은 침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침대 소유 유무에 따른 안방가구 사용

(%)

구분 / 변인		문갑			사이드 테이블		
		있 음	없 음	계	있 음	없 음	계
침 대	유	41(56.9)	31(43.1)	72(100.0)	15(20.8)	57(79.2)	72(100.0)
	무	95(79.8)	24(20.2)	119(100.0)	12(10.1)	107(89.9)	119(100.0)
	비고	x^2=11.46060*** df=1			x^2=4.27037* df=1		

*** p(.001 * p(.05

이는 양식가구인 침대가 있는 경우, 전통가구인 문갑의 보유율이 낮고, 대신 침대 가장자리에 주로 놓여지는 사이드테이블의 소유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사이드테이블의 보유율은 전체 16.9%로 이는 송민영(1987)의 연구의 결과인 사이드테이블의 보유율 11.3%에 비해 조금 높아진 듯 하나 아직 소유율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전통가구인 문갑을 침대 있는 경우의 56.9%가 소유하고 있음은 아직까지 전통적 가구와 현대적 가구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인 송민영(1987)의 결과 문갑을 전통가구로 가장 많이 희망한 것으로 보아, 가구가 현대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에서도 한 두가지의 전통가구를 소유하므로써 실용적인 면보다는 장식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전통가구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이가 낮은 문갑을 침대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안방공간의 사용의식

〈표 3〉 침대 유무에 따른 안방공간 사용

(%)

구분 / 변인		안방의 주사용자				안방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안방 사용 시간수			
		부 부	주 부	가 족 전 체	계	가구의 제요소[1]	가구외 요소[2]	계	5시간 이하	6-9 시간	10시간 이상	계
침 대	유	38 (52.8)	23 (31.9)	11 (15.3)	72 (100.0)	63 (87.5)	9 (12.5)	72 (100.0)	17 (28.8)	28 (47.5)	14 (23.7)	59 (100.0)
	무	55 (46.6)	50 (42.4)	13 (11.0)	118 (100.0)	89 (74.8)	30 (25.2)	119 (100.0)	29 (28.2)	42 (40.8)	32 (31.1)	103 (100.0)
	비고	x^2= 2.25588 df= 2				x^2= 4.45966* df= 1			x^2= 1.10480 df= 2			

1) 가구의 제 요소는 가구의 수, 배치, 색, 디자인, 재질을 포함 * p(.05
2) 가구외 요소는 벽·천장·커텐·조명의 색, 디자인, 재질을 포함

침대소유 유무에 따른 안방공간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x^2-test를 실시한 결과 안방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침대를 소유한 경우 가구의 색, 디자인, 재질, 수, 배치 등의 가구 관련변인이 다른 변인(천장, 바닥, 벽, 조명, 커텐)보다 안방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침대라는 가구를 배치함으로써 다른 가구들과 조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어 안방공간의 분위기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침대 소유에 따른 안방공간에서의 생활행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주공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행위 27개항목에 대해 2-1점(행위를 한다:2점, 하지 않는다:1점)으로 얻어진 점수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가족단란」, 「육아」, 「취미생활」, 「기타생활」, 「휴식생활」로 명명하였고, 이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65.0%를 설명한다.

그 다음 침대 소유 유무에 따른 안방공간에서의 생활행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4), 「가족단란」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침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침대를 소유한 경우보다 가족단란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대가 없는 경우가 침대 있는 경우보다 「응접 및 가족단란행위」를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이영호, 199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4〉 침대 유무에 따른 안방공간에서의 생활행위

변인 \ 구분		가족단란		육 아		취미생활		기타생활		휴식생활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침 대 유 무	유(72)	1.26	0.31	1.07	0.23	1.37	0.36	1.38	0.22	1.54	0.15
	무(119)	1.43	0.35	1.08	0.26	1.33	0.32	1.43	0.22	1.53	0.16
	t-value	-3.49**		-.39		.74		-1.79		.05	

** p< .01

4. 침대 유무에 따른 안방가구와 공간평가

침대 유무에 따른 안방가구와 공간을 평가하기 위해 가구와 공간의 느낌에 관한 형용사 27항목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14개를 본조사에 사용하였고, 각 평가 항목에 대해 7-1점으로 얻어진 점수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 1요인으로는 밝은·경쾌한·활기찬·매력적인, 제 2요인으로는 충실한·활동적인·계획적인, 제 3요인으로는 호화스러운·귀족적인, 제 4요인으로는 자유스런·편리한·높은, 제 5요인으로는 따뜻한·고전적인이 묶어져 각각을 「활동성」, 「평가성」, 「호화성」, 「공간성」, 「전통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전체변량의 60.2%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침대소유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앞에서 추출된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침대를 소유한 경우가 침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호화성」에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곧 침대를 안방공간내에 둠으로써 전체공간과 가구들이 호화롭게 보여져, 침대가 취침을 위한 장비적 기능 뿐 아니라, 안방공간내에서 장식적인 기능도 함께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5〉 침대 소유 유무에 따른 안방가구와 공간에 대한 평가

변인 \ 구분		활동성		평가성		호화성		공간성		전통성	
		평균	S.D.	평가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침대 소유	유 (72)	4.16	0.94	4.25	0.81	3.76	1.18	4.31	0.80	4.32	0.83
	무(119)	4.30	0.84	4.10	0.75	3.28	1.15	4.34	0.72	4.17	0.99
	t-value	-1.04		1.38		2.75**		-.31		1.06	

** p< .01

5. 안방가구의 제 요소에 따른 안방가구 사용 만족도

1) 안방 가구량 만족도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안방가구의 크기가 크다고 느낄수록 안방가구량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가구크기가 보통인 경우가 작다고 느끼는 경우보다 안방가구량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를 소유한 경우는 안방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가구 가운데 장농 다음으로 큰 가구인 침대를 안방공간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안방가구량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안방가구의 높이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 가구량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구의 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할수록 안방가구량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2)안방가구 배치만족

안방가구의 크기감에 따른 안방가구 배치만족도의 차이 검증 결과 침대가 있는 경우는 가구의 크기가 보통이고, 안방가구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할수록 안방가구의 배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안방가구 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할수록 안방 가구배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즉, 침대유무에 관계없이 안방가구의 색상과 디자인 만족과 가구배치만족은 같은 경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6. 안방가구 제 요소와 안방가구 사용만족에 따른 안방공간 만족도

안방가구의 제요소와 안방가구 사용만족에 따른 안방공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안방 넓이 만족도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안방가구의 크기가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에 안방넓이에 만족하였고, 안방가구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안방가구배치에 만족한 경우 안방넓이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안방가구의 높이가 높을수록, 가구색상에 만족할수록 안방넓이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안방 분위기 만족도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크기가 보통이라 느끼고, 가구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할수록 안방분위기에 만족하며, 또 안방가구량은 적당할 때 가구배치에 만족할 때 안방분위기에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가구크기와 높이가 보통이고, 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하며 가구량이 적당하고, 가구배치에 만족할수록 안방분위기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안방가구와 공간의 평가가 공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방가구와 공간의 평가가 공간만족도에 미

〈표 6〉 안방가구의 제 요소에 따른 안방가구 사용 만족도

독립 \ 종속			안방 가구량 만족						안방가구 배치만족					
			침대 있는 경우			침대 없는 경우			침대 있는 경우			침대 없는 경우		
			평균(N)	F값	Scheffe-Test	평균(N)	F 값	Scheffe-Test	평균(N)	F값	Scheffe-Test	평균(N)	F값	Scheffe-Test
안방가구의 제요소	안방가구 크기감	크다	1.75(8)	4.4997*	A	1.75(12)	5.0839**	A	1.88(8)	4.5163*	A	1.92(12)	2.3580	
		보통	1.72(53)			1.79(96)			2.26(53)			2.25(96)		
		작다	1.27(11)		B	1.36(11)		B	1.64(11)		B	1.91(11)		
		계	1.65(72)			1.75(119)			2.13(72)			2.18(119)		
	안방가구 높이감	높다	1.67(3)	.3260		1.85(13)	4.5500*	A	1.33(3)	2.1765		2.00(13)	1.4416	
		보통	1.67(63)			1.76(100)		A	2.17(63)			2.22(100)		
		낮다	1.50(6)			1.20(5)		B	2.00(6)			1.80(5)		
		계	1.65(72)			1.75(118)			2.13(72)			2.18(118)		
	안방가구 색상	만족	1.81(31)	2.9504		1.89(53)	8.4058***	A	2.48(31)	8.3817****	A	2.36(53)	3.5879*	
		그저 그렇다	1.54(28)			1.72(46)			1.86(28)		B	2.09(46)		
		불만족	1.54(13)			1.45(20)		B	1.85(13)		B	1.95(20)		
		계	1.65(72)			1.75(118)			2.13(72)			2.19(119)		
	안방가구 디자인	만족	1.76(33)	2.9794		1.90(50)	6.6058**	A	2.45(32)	14.8006***	A	2.52(50)	14.6596***	A
		그저 그렇다	1.65(26)			1.69(42)			2.08(26)		A	2.05(42)		B
		불만족	1.38(13)			1.56(27)		B	1.38(13)		B	1.78(27)		B
		계	1.65(72)			1.75(119)			2.13(72)			2.18(119)		

注 : 변인에 따라 빈도 합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 p(.001 ** p(.01 * p(.05
Scheffe test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표 7〉 안방가구 제 요소와 안방 가구사용 만족에 따른 안방공간 만족도

독립 \ 종속			안방 넓이 만족						안방분위기 만족					
			침대 있는 경우			침대 없는 경우			침대 있는 경우			침대 없는 경우		
			평균(N)	F 값	Scheffe-Test	평균(N)	F 값	Scheffe-Test	평균(N)	F 값	Scheffe-Test	평균(N)	F 값	Scheffe-Test
안방가구의 제요소	안방가구 크기감	크다	1.50(8)	3.9090*		1.92(12)	0.8032		1.50(8)	5.1989**	A	1.83(12)	5.0387**	
		보통	1.94(53)			1.85(96)			2.28(53)		B	2.27(96)		
		적다	1.55(11)			1.64(11)			1.82(11)			1.82(11)		
		계	1.83(72)			1.84(119)			2.13(72)			2.18(119)		
	안방가구 높이감	높다	2.00(3)	0.4157		2.00(13)	3.7681*	A	2.67(3)	0.7978		2.00(13)	3.2540*	
		보통	1.81(63)			1.86(100)		A	2.12(63)			2.40(100)		
		낮다	2.00(6)			1.20(5)		B	2.17(6)			1.60(5)		
		계	1.83(72)			1.85(118)			2.13(72)			2.18(118)		
	안방가구 색상	만족	2.00(33)	2.4398		2.06(53)	7.3617**	A	2.52(31)	9.0281***	A	2.45(53)	14.0334***	A
		그저 그렇다	1.68(26)			1.65(46)		B	1.90(28)		B	2.09(46)		B
		불만족	1.77(13)			1.70(20)			1.69(13)		B	1.70(20)		C
		계	1.83(72)			1.84(119)			2.13(72)			2.18(119)		
	안방가구 디자인	만족	2.00(33)	2.6172		1.98(50)	2.6364		2.61(33)	21.9120***	A	2.54(50)	25.1517***	A
		그저 그렇다	1.69(26)			1.76(42)			1.88(26)		B	2.10(42)		B
		불만족	1.69(13)			1.70(27)			1.38(13)		B	1.67(27)		C
		계	1.83(72)			1.84(119)			2.13(72)			2.18(119)		
가구의 사용만족	안방가구량	많다	1.40(15)	7.5305**	A	1.73(11)	.2289		1.73(15)	7.7616***	A	2.09(11)	2.8871	
		적당	2.00(47)		B	1.85(89)			2.36(47)		B	2.26(89)		
		적다	1.70(10)			1.84(19)			1.60(10)		A	1.89(19)		
		계	1.83(72)			1.84(119)			2.13(72)			2.18(119)		
	안방가구 배치 만족	만족	2.09(23)	6.4372**	A	1.98(40)	2.5723		2.74(23)	27.8311***	A	2.60(40)	29.9336***	A
		그지 그렇다	1.82(35)			1.82(61)			2.06(35)		B	2.11(61)		B
		불만족	1.43(14)		B	1.61(18)			1.29(14)		C	1.50(19)		C
		계	1.83(72)			1.84(119)			2.13(72)			2.18(119)		

注 : 변인에 따라 빈도 합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 p(.001 ** p(.01 * p(.05
Scheffe test: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으며, 안방가구 배치 만족도, 안방공간 넓이 만족도, 안방공간 분위기 만족도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안방가구와 공간의 평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 / 독립	안방 가구 배치 만족도		안방공간 넓이 만족도		안방공간 분위기 만족도	
	침대 있음	침대 없음	침대 있음	침대 없음	침대 있음	침대 없음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활동성	.0733(.0973)	.2255(.2785)**	.2597(.4216)**	.1274(.1828)	.0825(.1014)	.1642(.2197)*
평가성	.2409(.2744)*	.1230(.1371)	-.0095(-.0132)	-.0165(-.0213)	.2899(.3057)*	.1839(.2220)*
호화성	.0534(.0882)	.1219(.2068)*	.0248(.0500)	.0427(.0840)	.0919(.1406)	.0543(.0999)
공간성	.2783(.3131)**	.0422(.0448)	.1390(.1912)	.0534(.0658)	.1266(.1318)	.1618(.1859)*
전통성	.0416(.0485)	.0457(.0667)	.4188(5.9631)	.0597(.1013)	-.0449(-.0485)	.0898(.1412)
회귀상수	-.7848	-.0617	-.1480	.7397	-.1480	-.5269
adjusted R^2	0.28125	0.15157	0.22999	0.02819	0.18765	0.22642
F값	6.55651***	5.21618***	5.24131***	1.68452	4.28024**	7.90743***

*** p(.001 ** p(.01 * p(.05

1)안방가구 배치 만족도

침대를 소유한 경우 안방가구 배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요인2 「평가성」과 요인4 「공간성」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성」과 「공간성」의 평가가 높을수록 안방 가구배치에 만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침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안방가구 배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요인1 「활동성」과 요인3 「호화성」으로 나타나 「활동성」과 「호화성」의 평가가 높을수록 안방가구 배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안방가구 배치만족도를 높히기 위해서 침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평가성」, 「공간성」이 높은 안방공간이 되도록 해야 하겠고, 침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성」과 「호화성」이 높은 안방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침대를 소유한 경우와 침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28.1%, 15.2%였다.

2) 안방공간 넓이 만족도

안방공간 넓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침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활동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침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다. 즉 침대를 소유한 경우 안방공간의 넓이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활동성」이 큰 안방공간이 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대를 소유하는 경우와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독립변인 설명력은 23.0%와 2.8%이다.

3)안방공간 분위기 만족도

안방공간 분위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침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평가성」이 높을수록, 침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성」,「평가성」,「공간성」이 높을수록 안방공간의 분위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를 소유한 경우에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18.8%, 소유하지 않은 경우는 22.6%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안방공간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적 양식 가구인 침

대유무에 촛점을 맞추어 안방공간에서의 생활행태, 가구사용, 공간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공간평가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거주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침대소유 유무에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편연령이 47세이하이고, 남편과 주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침대소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침대소유 유무에 따른 안방공간과 가구에 대한 의식에 있어, 침대를 소유한 경우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문갑의 보유율이 낮고 사이드 테이블의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침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의외로 문갑 보유율이 56.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식가구와 한식가구의 절충을 의미하며, 안방공간에서 좌식생활과 입식생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부부의 취침은 입식생활로, 가족단란이나 육아는 좌식생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침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가구를 양식화·입식화 할 필요는 없으며, 전통가구와 현대가구의 혼용에 의해 좀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공간이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침대를 소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안방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구관련 변인 즉, 가구의 수나 배치, 색, 디자인, 재질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침대를 소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생활행위에 있어서는 침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소유한 경우보다 안방공간에서 가족단란행위를 더 많이 행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침대를 사용하므로써 안방공간이 어느 정도 부부중심의 개인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침대의 바닥점유율이 다른 안방가구보다 큰 편이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가족성원들의 사용에 공간적 제약이 가해져 「가족단란행위」가 덜 행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침대를 소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안방가구와 공간에 대해 「호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안방가구의 제 요소에 따른 안방가구 사용만족도에 있어 안방가구량 만족도는 침대가 있는 경우 가구의 크기가 클수록, 침대가 없는 경우 가구크기가 보통이고 가구 높이가 보통이상, 가구의 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할수록 안방가구량에 만족한 것을 나타났다. 즉 가구의 제요소에 대한 시각적인 만족이 가구량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안방가구의 배치만족도는 침대가 있는 경우는 가구의 크기가 보통, 안방가구 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할수록,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안방가구의 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할수록 안방가구의 배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안방가구 제요소와 안방가구 사용만족에 따른 안방공간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안방가구의 크기가 보통이고 가구량이 적당하며 가구배치에 만족할수록 안방의 넓이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크기가 보통이고, 가구의 색상과 디자인에 만족할수록 안방분위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가구높이가 높을수록, 가구색상에 만족할수록 안방넓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크기가 보통이고, 가구 색상·디자인에 만족하며 만족한 가구배치일 때 안방분위기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침대를 소유한 경우에 안방공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구의 크기와 량, 그리고 만족스러운 가구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공간의 협소와 제약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가구배치를 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좌식생활이 적당하다. 소규모 주택에서 반드시 침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농을 배제시키거나 수납용가구의 시스템화 또는 붙박이화하여 생활공간을 확보해야 하겠다.

여섯째,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성과 공간성이 안방가구 배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활동성과 호화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대가 있는 경우 안방공간 넓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활동성으로 나타났다. 또 안방공간 분위기 만족도에 있어서는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성이,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활동성, 평가성, 공간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안방에 있어서의 가구사용과 공간사용은 타실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거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의 갯수와도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로 안방가구의 점유율과 침대 외의 다른 가구의 종류, 가구배치 형태 등을 파악하여 공간의 적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안방가구의 공간사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무진, "주거공간의 가구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환경대학원, 1986.

공성근, "소형주택의 공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1990.

김국연, "침실 공간의 적정 SCALE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1981.

송민영, "안방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7.

윤봉옥, "아파트 실내공간 가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87.

이명자, "소규모 아파트 공간에서 가구의 점유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1989.

이선수, "주거행위 및 가구사용에 따른 아파트 실내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86.

이영호, "한국도시주거의 안방에 관한 행태적 연구", 계명대 대학원, 1991.

이웅섭, "아파트의 공간사용규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6.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田中宏子, "住宅居間における裝備的要因としての家具が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に關する 研究", 奈良女子大學, 1990.

고도임, "경기도 농가 안방 공간에서의 주생활 변화과정",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조원덕, "가구의 이용에 따른 주행의 영역의 구성과 공간효과",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0.

안옥희, 실내디자인, 서울: 미진사, 1993.

이명옥외,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Ⅰ)", 한국주거학회, 제 2권, 2호, 1991.